

### 우리 시대의 모습

2021년 8월 21일, 한 일간지에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라는 이 회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급하는 기업이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회사의 수익률이 발표되기 약 1년 전인 2020년 8월 11일, 비트코인에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금액의 규모가 커서였기도 하지만, 이 발표가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이유는 회사의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가 그동안 가상 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다.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발표할 당시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소유한 비트코인은 105,084개였고 수익률은 308.15%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 회사의 주가는 448.97% 상승했다. 주식이나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놀랍도록 높은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업만큼은 아니지만, 몇 해 전부터 가상 화폐에 투자해서 평생 만지기 힘든 돈을 벌었다는 무용담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주식은 또 어떤가? 2021년 1월 17일, 금융투자협회는 신규 개설된 주식 계좌의 규모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 1-14일까지, 즉 2주 동안 개설된 주식 계좌 수는 하루 평균 7만 개에 달했다.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많은 사람이 앞다투어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이다. 국내에서 집값과 관련하여 공인된 국가 통계를 내는 곳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하다. 2021년 8월 17일,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집값은 한 달 만에 20%가 올랐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다른 한편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또한 곳곳에서 들려온다.

### 포모(FOMO) 신드롬

가상 화폐, 주식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교하지  
않아요!**  
As God made me!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아,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거기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 바로 ‘포모 신드롬’이다. 포모(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주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뜻한다. 즉,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기회를 나만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즉, ‘많은 사람이 가상 화폐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는데, 나만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만 돈을 벌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괴로워하고,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다.

### 포모 신드롬의 결과

포모 신드롬은 사람들에게 K자 모양의 양극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모습은 ‘영끌’해서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즉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장 무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도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영끌을 해서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의 영끌로 인해, 우리나라에 주식과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영끌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굳이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또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얼마를 버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등등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포모 신드롬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가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도 그것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중압감을 느끼고, 그것을 갖지 못할 때 자꾸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 사회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

사회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는 1954년에 사회 비교 이론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에서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다른 이들과의 사회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평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타인을 비교하고자 하는 상향 비교와, 자신과 능력이 유사한 타인을 비교하고자 하는 유사 비교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상향 비교’와 ‘유사 비교’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다른 사회 심리학자인 조지 괴텔스(George R. Goethals)는 타인과 접촉이 많거나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이 빈번히 일어날 경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과의 사회 비교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즉, 비교는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매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비교는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비교

우리의 삶에서 비교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상점이 가장 싸고 품질 좋은 것을 판매하는지 오프라인 상점과 온라인 쇼핑몰들을 비교한다.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해야 할 때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비교한다. 어디 그뿐인가? 어떤 음식이 더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를 비교하고,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하기에 좋은지도 비교한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비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일어난다! 따라서 비교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교 의식’은 다르다.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를 자신과 비교하고, 나아가 그 비교를 통해 나의 가치를 평가하며, 나



**비교하지  
않아요!**  
As God made me!

의 위치를 가늠하려는 비교 의식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런 비교 의식이 깊게 뿌리 내려 있다. “SNS 보니까, 그 사람들 또 해외여행 갔더라!” “나 말고 저 사람도 00제품 쓰네!” 이미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비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서 비교는 항상 존재해 왔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교를 받아들이며 살아와서 감각이 무뎠던 것인지도 모른다.

###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그동안 당연시하던 다양한 사회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포함한 여러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사람들은 온라인상의 콘텐츠들을 빠르게 소비했고, 또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다. 사람들과의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그 양과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확장을 이끌었다. 사람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타깝게도 우리의 비교 의식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기술 개발은 우리가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것을, 더 빠른 속도로 비교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다음세대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아이들도 더 커진 온라인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비교하며 살아간다.

### 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걸까?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

# As God made me!

주제 해설

람과의 유사 비교를 통해 우월함을 느낀다고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의 상향 비교를 통해 박탈감을 느낀다고 자신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레온 페스팅거의 이론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면, 즉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회 비교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다. 즉,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다고 기뻐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기 때문이다.

##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비교가 일어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일까?

## '격려의 아들' 바나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울러 그 결과로 인해 생겨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으로 불릴 만큼,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초대 교회에 역사하셨는지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도 소개되어 있다.



**비교하지  
않아요!**  
As God made me!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 중, 우리에게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로 더 많이 알려진 요셉이 있다.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요셉의 모습은 그의 별명처럼, 격려하는 사람이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견고한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지녔고,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또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 사울은 그런 바나바를 훌륭한 동역자로 생각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신약의 역사에서 출중한 모습을 보인 사울과 동역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에게 자신과 사울을 비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다.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인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격려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 바나바는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없는 은사를 가진 사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며, 그것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 **비교하지 않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비교하지 않아요!’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왜 비교하면 안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비교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 서로의 은사를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은사로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 원하신다.

# As God made me!

주제 해설

올여름, 교사인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길 기도한다. 또한 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격려하고 세우며, 나의 은사로 끝까지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경험하는 사역이 되길 소원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 2:10 상).